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 확정...부가 가치는 15조원 목표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다. 2040년까지 도내 항만 총 물동량을 6억톤으로 높이고, 부가가치는 15조원으로, 종사자는 45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5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항만정책심의 회를 개최하고,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핵심 항만지역 구축'을 항만발전 중·장기 비전으로 정했다. 목표는 2010년 1억1,700만톤인 충남 항만 총 물동량을 2030년 3억9,500만톤으로, 2040년에는 6억톤 향상으로 잡았다. 도내 물동량 처리 비중을 현재 10% 안팎에서 2030년 17%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 부가가치는 2009년 2조원(추정)에서 2030년 9조원으로, 2040년에는 15조원으로 높이며, 항만산업 종사자는 2009년 4만6,000명에서 2030년 25만명, 2040년에는 45만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장동력화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해양관광산업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항만 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등을 4개 전략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로 세웠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

장 동력화 분야에서 ▲항만SOC 적기 개발 및 확충 ▲배후수송로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당진항 송산지구 공용부두 개발 ▲세종시 관문 인프라 확충 등을, 항만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분야에서는 ▲에너지산업 지원 및 항만특화 개발 배후 물류단지 확충 ▲전국 광역준설로 투기장 유치조성 ▲복합산업단지 구축 ▲물류창고시설 구축 ▲연안 해상 활성화 유도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 조성 등을 내놴다.

또 해양관광산업 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분야는 ▲항만 내 친수공간 확보 ▲항만재개발 및 시설 활용 ▲여객부두 이용 활성화 등을, 항만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분야에서는 ▲항만 거버넌스 재설계 및 법 제도 개선 ▲항만 운영시스템 효율화 ▲대외교류 협력기반 구축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업은 국가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순위를 정해 추진, 서해안 물류 중심 항만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법정 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장기계획으로서의 한계와 충청권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고려, 충남에 특화된 장기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충남 소식

‘중앙 공모’ 18개 사업 184억 선정

— 상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 ‘문화의 달’ 행사 10억 등

충남도는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앙 공모사업에 ‘문화의 달’ 등 18개 사업 184억원(지방비 포함)이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분야 8개 사업 25억원 ▲체육분야 6개 사업 124억원 ▲관광분야 4개 사업 35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2012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3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100억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억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 1억6,000만원 등이다.

이 중 오는 10월 19~21일 서천 금강하구 및 장항 물량장·신성리 갈대밭 등에서 열리는 2012년 문화의 달 행사는 ‘자연예찬(自然藝讚)’을 주제로, 특별 테마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홍성 문화생태탐방로(홍주성 천년 여행길)는 홍성역과 홍성 전통시장, 홍주성 등 8.5km를 이어 관광상품화 하며,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은 천안 흑성산 일원과 보령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8개 184억원의 공모사업 선정은 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의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일군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광역 생태지도’ 2013년 완성

—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바이오통지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지도(바이오통)가 2013년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본 생태지도 내용을 반영해 입안단계부터 환경보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5월 16일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용역과 생태지도 작성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목표는 충남지역 생태의 골격인 산맥(금북, 금남정맥)과, 금강을 비롯한 주요하천, 바다와 접한 서해연안부에 대한 광역생태축 구축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도내 시군에서도 자체 관할구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가뭄·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점검

-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당면사항 전달·토의 등 진행

이날 중간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광역 생태네트워크구축 연구용역과 비오톱지도 제작 용역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가치 있는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군 공무원과 용역 수행자인 총발연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도에서는 추한철 환경녹지국장과 최진하 환경정책특보 등 환경정책부서 관계공무원이 참여했고, 시군에서는 생태지도(비오톱)제작 및 야생동·식물 담당자가, 총발연에서는 환경생태연구부장 및 관계 연구원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추한철 국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온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지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어떤 곳을 보전하고, 어떤 곳을 과감하게 개발해야 할지 합리적인 기준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동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태환경을 외면하면서 개발해 왔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적개발로 탈바꿈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가뭄 대책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6개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 도 실·국·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토의와 당면 사항 전달, 시·군 건의 및 협조사항 설명, 행정안전부 회의 내용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하절기 감염병 대응전략 및 감시체계 강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상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가뭄극복 대책 추진 철저 ▲생활용수 가뭄대책 추진 ▲도청이전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협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 철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철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 철저 ▲장마철 가축매몰지 관리 강화 ▲폭염 종합대책 추진 등이 전달됐다.

시·군 협조사항으로는 ▲‘2012 당진 해와 달의 만남&바다불꽃축제’ 개최(당진시) ▲‘2012 금강민속축제’ 개최(금산군) ▲춘장대해수욕장 개장(보령시) 등이 나왔다.

▶▶▶ 충남 소식

이날 회의에서 구본충 부지사는 “이제 장마가 예보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가뭄을 완전히 극복 할 때까지 총력 대응 태세를 늦추지 말아 달라” 고 말했다.

구 부지사는 또 ▲여름 휴가철 ‘우리고장에서 휴가보내기’ 홍보 협조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 철저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철저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철저 ▲물놀이 안전 등 휴가철 안전대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충남도 ‘착한 식당’ 을 찾아주세요

— 지역 최초로 로컬푸드 외식업체 발굴 공모... 7월 27일까지 접수

충남발전연구원은 도내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우수 외식업체 발굴 공모를 7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착한 소비를 응원하는 착한 식당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는 지역의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외식업 로컬푸드 인정제도’ 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외식업체, 소규모 유아시설, 제과점 및 도시락업체 등이며,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의 생산 지역이 운영업체 소재지 혹은 근교 농수산물로



써 최소 60% 이상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7월 27일까지 ‘로컬푸드 외식업체 신청서’ 를 충청발연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최종결과는 서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공지할 예정이다.

유학열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은 “이번 로컬푸드 외식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충남 로컬푸드 대표명칭 사용 ▲충남 로컬푸드 외식업체 상징디자인 제작 및 홍보 지원 ▲로컬푸드 외식업체 협의회원 자격 부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구매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도내 ‘착한 식당’ 을 운영하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충청발연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T.041-840-1215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7주년 기념행사 개최

— 〈돈의 맛〉임상수 감독 초청 특강
기념세미나도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4일(목) 오후2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개원17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던 영화 〈돈의 맛〉의 ‘임상수 감독’을 초청해 가진 ‘돈의 맛! 그 불편한 진실’이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충발연은 2부 순서로 ‘행복, 선순환, 그리고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가졌다.

충발연 고승희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본 연구는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선정에 있어 충남 및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의 최종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실제 측정과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킬 수 있

는 합리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충남대 정선기 교수는 “행복지수 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문제는 개발된 지표가 실제로 해당 주민의 ‘행복’, 즉 그들의 생활양식에 기초한 ‘행복’ 개념인가 하는 것이며, 특히 충남지역은 시·군별 생활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주민의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일반지표’ 이외에 유형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수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발연 신동호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실태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란 신내생적 또는 내발적 발전론에서 지향하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지역의 자족성과 자립성 확보를 의미”한다며 “충남의 지역경제를 생산-분배-소비로 분석해보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원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이 낮고, 생산과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수도권 의존도가 높으며, 지역 외로 유출되

▶▶▶ 연구원 소식

는 요소소득 비율은 높고, 지역내총생산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지역 내로 귀속되는 영업잉여는 성장률이 낮고, 지역의 경제환경이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으로 소비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내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기업의 본사를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업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충남과 시·군정의 선도적인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7년을 달려왔다.”면서 “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과 김정숙 의원,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임승한 본부장 등 각계 기관장, 그리고 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충발연 개원17주년을 축하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올해 연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5월 29일 가졌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충발연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 그리고 연구원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써 활동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은 각 분야별 1~2인씩 총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뿌리기」 번역서 출간

충남발전연구원은 영국, 뉴질랜드 등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뿌리기’ (따비, 420쪽, 2만원)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의 두 저자인 영국의 토트네스에서 전환



운동을 시작한 ‘로컬푸드’와 초기부터 참여한 ‘탐진 핑커턴’이 소개하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는 크게 12가지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먹거리를 사

먹기만 했던 현대인이 다시 먹거리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조리하는 옛 기술을 익히는 것을 뜻하는 ‘재기능화’에서부터 석유 없는 세상을 물려받게 될 미래의 주역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땅과 공동체를 다시 만나게 하는 학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이 소개하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그렇다고 저자들이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거창하지도 않다. 단 일곱 가구가 진행해나가는 소박한 프로젝트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수백 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런던 해크니의 ‘지역공동체 키우기’ 등)도 한두 명의 아이디어와 부지런함, 그리고 열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저자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책에서 로컬푸드 프로젝트의 유일한 방향이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찬양하고,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행동을 고무”하고자 한다.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이 책은 영국에서 풀뿌리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와 먹거리의 전환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꾀하는 전환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의 책을 옮긴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로컬푸드라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현장실천 지침서.”라고 소개하면서 “충남도에서는 3농혁신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로컬푸드 정책담당자나 지역운동가, 그리고 먹거리문제를 고민하는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등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을 조직하고 로컬푸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